

♥ 알콜 중독 치유센터 ♥

상담 : 0502-500-0691

알콜훈련생 모집

홈페이지 www.rko.co.kr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www.cpj.kr

파종진 목사 12월 국내·외 성회 일정

12월 1주: 12월 1주 성회(12월 1주 성회) 12월 2주: 12월 2주 성회(12월 2주 성회) 12월 3주: 12월 3주 성회(12월 3주 성회) 12월 4주: 12월 4주 성회(12월 4주 성회)

<창간호>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발행 · 편집인 정기남 www.cpj.kr 110-85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51-3 은암빌딩 5층 ☎02-743-1654~5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남측 기독교 지도자 250여명 및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북한 평양 대동강구역 동문2동 병원건립부지에서 '조용기심장전문병원'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은 강영섭 조그련 위원장의 감사의 말과 조용기 목사의 답례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윤규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NCCK) 권오성 총무, 세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축사로



“사랑의 땀줄 되어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것”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착공, 2010년 완공예정

진행했으며 남북 교제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의 테이프 커팅과 시삽식도 함께 진행됐다. 조용기 목사는 착공식에서 “이번에 남측 크리스천들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북측 동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심장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만남이 남북 동포 간에 사랑의 땀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윤규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 역사 이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심장병원을 착공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으며, 권오성 총무도 “6·15정신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실현한 첫 사례로 믿음의 역사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남측은 조용기 목사와 조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이윤규 한기총 대표회장, 권오성 NCCK 총무, 이종근 심장전문병

원 건립위원장(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강영섭 조그련 위원장, 오경우 조그련 서기장, 김경애 조선의학협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기심장전문병원의 규모는 대지면적 3만㎡에 연면적 2만㎡로 지하 1층, 지상 7층, 병상 260개이며, 건립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병원은 2010년 6월 완공돼 그해 말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이 완공되면 남측 의료진 60여명이 상주하고 병원 내에 원목 사무실과 예배실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기남 목사 발행인

창간사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와 크리스찬포토저널(christianphotojournal) 등 주간신문과 인터넷방송을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선배들이 지피놓은 문서 전도적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한국교회의 갱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세상에 뿌리신 씨앗을 응골진 잣대로 펴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 쉽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파급되고 부흥하기까지는 인쇄술의 발전을 통한 문서의 위력이 뒷받침되어 왔으며,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보여준 한국 교회 역시 문서와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 하는 일로 부흥을 일으켰고 봅니다.

지금껏 많은 기독교 언론인, 새벽예배 무용론이 나오고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 되며, 기독교 문화의 혁신적 변화의 바람이 부는 현실에서 문서와 방송을 통한 언론이 지켜내고 감당해 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방송, 언론은 기독교를 대변하며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독교 안의 화합을 꾀하는데 한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감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경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 방송은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편축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쉬어 썩듯이 부흥의 빛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는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으며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밤마다 교회들의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교회는 심히도 적습니다. 또한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이 올바른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선교를 위하여 뛰어듭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 봐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풍회 분열, 따로 취임예배 드려

증경회장단 이중플레이, 사태 키워

한국기독교영풍회가 사실상 양분화 체제로 들어섰다. 영풍회는 지난 10월 27일 강북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가져 대표회장엔 라성열 목사(구리시민교회)를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라목사의 개인적인 결격사유(가정문제)를 문제 삼아 대표회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회장 취임 하루 앞둔 8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특별 임시총회를 열어 최능력 목사를 대표회장엔 선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증경회장단의 원칙 없는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영풍회 임헌평 대표총재 명의 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라성열 목사의 개인 사정은 대표회장 자격에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



내가 소집하지 않는 한 분별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라 대표회장은 영풍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화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취임예배를 드린 최능력 목사는 “앞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영풍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였으나 사실상 한국기독교영풍회는 라성열 목사측과 최능력 목사측 등이 이끄는 양분된 영풍회로 출범,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한편 대표교인 조종목 목사(은혜와 진리교회)는 대표교문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뜨거운 3파전

김동권.김호윤.엄신형목사 등록 마쳐...



김동권목사 김호윤목사 엄신형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후보접수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6일 마감된 결과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진주교회), 엄신형 목사(예장 개혁총연·중흥교회) 김호윤 목사(예장 합동중앙·햇불중앙교회), 3명이 등록했다.

등록전 역대 최다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대표회장 선거는 사퇴 및 여러 정리를 거쳐 마지막으로 총 3명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그러나 3명 후보 모두 교계 연합기관의 주요직책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등 지도력을 인정

받고 있는 인물이라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호윤 목사는 지난 2005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 교단 확충에 직접 발 벗고 나서면서 군소교단 가입비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는 등 작은 교단에 대한 배려가 큰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단 내에서도 요직을 맡으면서 화합을 강조한 인물이다.

김동권 목사는 예장 합동총회장을 비롯, 총신대 재단이사장 등 교단 내에서의 주요 직책들을 감당하며 소신 있는 행동을 보였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0년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교단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 장로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엄신

형 목사는 지금의 예장 개혁총연합회 교단이 있기까지 교단이 수차례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교단 내 인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끄는 등의 지도력을 보인 인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창연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준순 목사)는 7일 등록된 후보들에 대한 1차 심사를 갖고 오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www.cco.or.kr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

Korean Conference of Christian Churches

창간

축

MERRY CHRISTMAS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62-12
TEL : 02)3676-9995-6
FAX : 02)3676-9998

지저스타임즈의 창간을 기쁜 성탄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회장 이강평 목사	부회장 육운식 목사	부회장 장성영 목사	부회장 조충기 장로	서기 김용강 목사	부서기 김덕원 목사	회의록서기 전장원 목사	회계 신동식 목사
부회계 강보식 목사	감사 이영호 목사	감사 김재용 장로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	협력총무 김용철 목사	협력총무 김종진 목사	협력총무 임만동 목사	

축시 지저스 타임즈의 창간을 축하하며..



시인 최장희 목사
한국기독교작가협회 부회장
서신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펜으로 복음을 전하다.’

‘펜으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높은 하늘과 기름진 땅
신선한 산소와 따뜻한 햇살
푸르름 가득한 생명의 터전에
또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위해
선악과만 남겨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세대들이여
오! 거룩한 하나님
여기 이 땅 위에 정론지를 심습니다.
능력의 펜으로 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비굴한 이 나라에
가슴을 통촉케 하는 펜이 되게 하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이 땅 위에 사명지를 펼칩니다.
의로운 펜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펜이 되게 하소서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이용규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중흥교회



김윤기 목사
개혁신교총회 총회장



김탁기 목사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총무

“미래를 예견하고, 제시하고, 선도하는 언론 되어주길”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저스 타임즈 창간을 축하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시각과 생각과 표현에 따라서 역사는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후대에 전해지면서 그 시대를 살지 않아도 경험히 되고, 교훈이 되고, 미래의 교과서가 되어왔습니다.
그만큼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저스타임즈는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정한 미래의 역사를 예견하고, 제시하고, 선도하는 참 언론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언론 되어주길”

한국의 기독교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종교의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언론을 창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많은 언론이 발행되고 있기에 또 무슨

창간인가라고 반문하였지만 교회가 많고 성직자와 성도들이 많은 만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언론 또한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뒤늦게 창간된 만큼 지금까지의 언론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되 필을 깨끗하게 세우기를 바라고, 누구나 하는 말이 아닌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해주는 진정한 자유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언론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창간되는 지저스 타임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상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물질을, 지혜를,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언론 역사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언론인들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저스 타임즈는 그 제호가 말해주듯이 예수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시간까지 다스리시고 지배함으로 그 안에서 평화가 누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역사가 담겨지길”

지저스 타임즈!!
일단 제호가 좋습니다.
정말 이 신문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 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발행인이 되고, 편집인이 되고, 기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얼굴이 되고, 독자

가 되고, 중심이 되는 언론, 그런 언론이 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필체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

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다면 모두가 슬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모두를 인도하는 참된 선교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어주길”

지저스 타임즈가 창간되어짐을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문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저스 타임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유익함을 줄 것인지, 선교지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살피서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누구에게든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 같은 언론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냉철하고, 정직

하고, 겸손함으로서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또한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여 상처받은 교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07837)

■ 발행 · 편집인 : 장기남 목사

■ 이사 : 최종림 목사, 최장희 목사, 오종실 목사, 권세능 목사, 박우관 목사, 서명범 목사, 권태국 집사, 홍정균 집사

■ 본심위원 : 박완근 목사, 김상익 목사, 이기선 목사, 배경락 목사

(9)110-850 서울특별시 중로구 효제동 51-3 은암빌딩 5층
cp인터넷방송국 (E-mail : webmaster@jpi.kr)
(9)339-823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87-7 (충남 아00030)
대표 전화 : 011-468-6574, 011-863-6574, 02-743-1654-5

김탁기 목사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총무

창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장창수 목사 총무 장승현 목사

“지저스타임즈가 성탄절을 앞 두고 창간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보다 좋은 신문과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장창수 목사
웨신총회 임원과 총회원 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42-105 201호
TEL. 02)835-2607

창간

도 / 곡 / 교 / 회

담당목사 최종림 목사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을 성탄절을 맞아 창간과 개국함에 있어서 무궁한 발전과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최종림 원로목사 담임
백종용목사 외 교우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2리 쌍용스윗홈 아파트 103동 1201호
TEL.031)521-4475, hp.011-239-4620



송태섭 목사
한국방송위원회
수원영교회시무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개국과 창간을 축하합니다”

지저스타임즈 창간을 축하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계신문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던 정기남목사가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크리스찬포토저널(cpi.kr)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국교계를 빛낼 좋은 신문과 인터넷방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자가 있지만 사실은 교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신문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받는 신문...방송이 되길 바라고 힘이 있는 정론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져서 교계를 정화

시키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늘진 곳을 찾아 내어 빛이 되어주는 좋은 신문과 인터넷방송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 심는 정론지 되길...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평소에 한국교회와 교계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에 비전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 창간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축하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이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타임즈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

을 많이 나타내고 문서선교로 복음을 전파하며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많이 복음이 전달되고, 총망 받는 신문과 방송,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전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신문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신문이나 방송이 있지만 지저스

지저스 타임즈의 창간을 축하하며...



최중림 목사
도곡교회 원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재판국장을 지낸바가 있고 이전 원로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잘 아는 정기남목사가 “지저스타임즈”를 창간하고 “인터넷방송 크리스찬포토저널”을 개국하게 됨을 듣고 여름철에 얼음냉수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목사는 아주 우직하리만치 고지식하며, 정실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정 목사는 아주 순수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목사는 아주 진실하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진기를 들고 다녔으며,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좋아했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목사는 정이 많아서 누가 아파하면 위로할 줄 알고 그러기에 항상 남도 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새로 태어나는 신문이 오직 正論直筆을 社론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기남 목사이기에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는 기대합니다.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이 반드시 바른 시각의 신문과 인터넷방송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감동을 풀어 주는 시원한 한 그릇의 냉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농협에서 본 글을 옮기려 합니다. “公正眞實萬成之源 千策萬術不如一誠”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수같이 흘러 보낼 참 언론 되길...



장창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위원 총회장

먼저 새로운 기독교언론의 탄생과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산재해 있다. 저마다 사회기반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충분한 사명과 목적의식을 갖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그 무수한 언론 매체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각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전횡되

어지면서 거대한 이기집단의 권력화와 세력화에 이용되어 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인류역사 가운데 언론의 역할과 비중은 결코 간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세상의 문화와 정치적 사상 뿐 만아니라 기독교역사 발전과 교회성장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인공은 역시 기독교언론이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기독교언론의 사명이 막중하다.

특정 교파에만 치우친 교단지의 한계와 불명

예를 벗어나고 어느 편도, 어느 쪽도 아닌 오직 진리 안에서 참 된 기독교언론의 사명을 감당해 줄, 혁신적인 기독교언론 매체의 출범은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바람이자 갈망한 소망이다. 이에 건전한 신학과 올바른 사상으로 한국교회 정치, 문화,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내 보낼 참 언론의 탄생에 감사하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쉬이 썩듯이 부흥의 빛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맙니다.

밤마다 교회의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경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교회는 심히도 적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이 없는 이때에 올바른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축 창 간



장미자 사모

- cts 내 영혼의 찬양 찬양리더
- 한국복음성가협회 부회장(06)
- (前)극동방송 진행(장미자의 찬양여행)
- mbc해변가요제 대상
- 도원교회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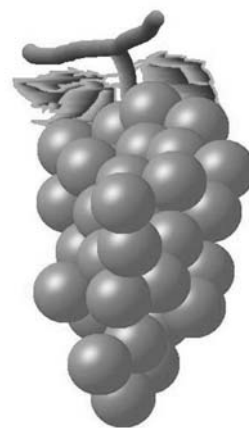
“즐거운 성탄절을 앞 두고 지저스타임즈 창간과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장미자 사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24번지
hp.011-272-3472

www.jargmija.com / e-mail : jangmij2@hanmail.net

축 창 간



“지저스타임즈와 크리스찬포토저널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태국치과 원장 권태국집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2-6
TEL. 02)396-9988 / hp.019-251-8741

Planning

설교에 목숨 걸 자신이 없다면 가정교회를 하라

머리글

11월 1일 고려신학대학원(천안) 대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600여명의 청중들이 내뿜는 열기보다는 발제자와 패널들이 내뿜는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날 가정교회 를 주제로 변종길박사, 이상규박사, 유해무박사, 김순성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준비된 논문을 발표하고 패널들과 중점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목회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다른 대안을 찾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목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있었던 학술대회를 집중 취재하여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 첫 발제자 변종길 박사

첫 번째로 등단한 변종길 박사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가정교회는 성경적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최영기 목사가 주장하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교회를 초대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하고 가정교회의 내용을 장로교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용어는 그대로 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 이상규 박사

두 번째로 강단에 선 이상규 박사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교회사에서 본 가정교회”라는 주제로 나서 “공식적인 집회소로서 예배당 건물이 발견된 것은 256년 유프라테스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에서였다”고 서두를 뒀다. 뒤 150년까지의 신자들의 집회장소는 가정집이었고 150-250년 어간에는 주택을 개조하여 집회소로 사용하는 시기였고 250년에서 313년까지는 큰 건물 형태의 집회장소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에서 회집하고 가정에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성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정교회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결론으로 그는 가정교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장로교회의 신학과 예배, 의식 등 장로교회의 예배와 교회구조도 16세기를 거쳐 제도화되었

다. 새로운 제도는 항상 상당한 저항과 반대에 직면했다”면서 “가정교회 운동은 셀교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목회방식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목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변화된 환경은 새로운 목회 방식을 요구하는데, 가정교회는 이런 현실의 반영이고 이런 방식 또한 한 시대의 유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된다”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제자 유해무 박사

세 번째로 등단한 유해무 박사는 “설교에 목숨 걸 자신이 없다면 가정교회를 하라”고 일갈하여 참석자들이 순간 긴장하였는데 이어 “개혁교회론에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개혁교회의 사역자는 가르치는 목사만 있을 뿐이고 평신도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라는 평소 교의학적 지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 방법론으로서 가정교회론의 특성은 참모할만하다고 하면서 가정교회를 장로교의 옷을 입혀 도입하려면 하되 굳이 성경에서 억지로 그 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을 존중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공교회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정교회론을 남에게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신교회의 신학은 방법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도입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평가하고, 목회 현장에서 공교회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 네번째 발제자 김순성 박사

마지막으로 발제한 김순성 박사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가정교회 소그룹 구조와 기능의 실천신학적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다분히 가정교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가정교회는 한 마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다기능적 소그룹 교회운동이다. 종래의 소그룹 운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며, 기능적인 면에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가정교회의 특징을

첫째, 공동체 중심의 사역의 장(場)이다. 둘째, 평신도 중심의 사역의 장(場)이다. 셋째, 목양기능을 지닌 사역의 장(場)이다. 넷째, 삶의 나눔을 통한 친교와 치유사역의 장(場)이다.

다섯째, 영혼구원 중심의 전도와 선교사역의 장(場)이다. 여섯째, 성경적인 제자훈련의 장(場)이다. 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소그룹은 새 부대이지 그 자체가 새 포도주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부대에 무엇을 담는가는 여전히 목회자의 몫이다”고 결론지었다.

패·널·토·론

- 고려신학대학원 주최, 논문 발표 학술대회 -



김순성 박사



변종길 박사



유해무 박사



이상규 박사

이날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김낙춘 목사(한영교회) 조태환 목사(울산큰빛교회)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권상준 장로(구미남교회) 정성수 장로(울산큰빛교회)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한결 같이 가정교회의 장점과 장로교회가 시행함에 있어 하등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장로 패널들은 “단점을 말하라 하는데 단점은 없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고 대답해 발제한 교수들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용어 문제였다. 변종길 박사나 유해무 박사는 가정교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변 박사는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왔을 때 쉽게 붕괴되고 이탈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유 박사는 목사가 없는 가정에서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를 맡은 김순성 박사는 가정교회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중재에 나서 보았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패널들은 교회라는 용어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 ‘교회’를 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더욱더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두 박사는 강하게 입을 모았다.

그러자 김순성 박사는 다른 대체 용어는 없겠는가 하고 청

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천현옥 목사(코람 데오닷컴 편집장)가 나서 두 쪽 다들 다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가정’이라는 용어와 ‘교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으로 ‘교회가정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할지 제의했다. 쉽게 말해 ‘○○교회가정공동체’ 줄여서 ‘교회가정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쉽게 받아들여하지 않았고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 끝까지 비판자로 남는 것이 가정교회의 발전에 유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유해무 박사의 평행선 전투 발언과 같이 명칭 자체도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지면서 학술대회는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듯 시간을 넘겨막을 내렸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연구 보고 및 발표 논문 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435-0356 팩스: 495-287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39-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씨티교회
THE SEOUL CITY CHURCH

www.seoulcitychurch.com

만민을 구원하겠습니다.
만민을 치료하겠습니다.
만민을 가르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일1부예배 오전8시50분 분당 / 주일2부예배 오전 10시 50분 분당 / 주일저녁예배오후 7시 분당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분당 / 수요기도회 오후 8시분당 / 금요철야기도회 자정 분당 / 서울기도원 오전 10시 왕십리교육관
오후기도회 오후 2시 5층 교육관 / 마가의다라방 오후 10시 분당 (토요일) / 청년회 오후 6시5층교육관 (토요일) / 중고등부 오전10시 5층교육관 (주일) / 주일학교 오전 11시 1층, 2층, 5층 교육관
오시는 방법 262번 의의도-장안동-사가정역-상봉역-망우동 / 270번 수색-신촌-종로-청량리-상봉역-망우동 / 70번 성남-어린이대공원후문-용마산길-상봉역 / 2113번석계역-태릉-신내동-망우동 / 2234번 봉화산역-신내동-망우동
●버스를 타신 후 서울씨티교회(망원역) 또는 송곡고교앞에서 하차 ●용산-덕소행 중앙선을 타신 후 망원역 2번출구로 나오십시오.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은 넓직한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시고 강당건물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Planning

한국 교회, 과연 탈출구는 있는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 통해 해법 모색

생목협, 생명목회 2007 목회자대회

생명목회실천협의회(생목협 상임의장 손인웅 목사) 주최 생명목회 2007 목회자대회가 15일 오후 3시, 연동교회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교회, 탈출구는 있는가? 라는 주제에서 보듯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발제자의 주제 강의를 유심히 듣고, 질문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왔던 이성구 고신대대학원 교수는 이번 목회자대회에서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는 미래 전망 강의 를 통해 여지없이 한국 교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망 때문에 충돌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소수가 아닌 다수”

이 교수는 “하필이면 1907 100주년에 아프간 피랍 사태가 터졌다”며 “그러다 보니 어게인 1907은 실종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은 조 목사가 나와 친구이기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다”며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이 교수는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다수의 종교가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불교 인구가 1,800만이라고 하지만 매우 모이는 (개신교의) 결집력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다”며 “특히 상층부에 갈수록 기독교인이 많고, 경쟁 사회에서는 다수를 점하는 집단이 경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 교회가 이미 다수 교회가 되었고, 리더의 위치에 있음에도 일제하 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한 게 보수 교회의 현실”이라며 “다수이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이라며 부당산, 권력 등을 예로 들며 “사회가 가진 것을 교회도 가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왜 교회가 바라는 영역이 세상과 똑같나,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다”며 교회를 향한 따끔한 충고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결론에서 “아랫둔 한국 교회가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열린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바로 “목사들이 자기 유익한 것 외에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며 “전부 자기 말만 하지 하 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승미, 반공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 고상한 모습은 어디로?”

이어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복음과상황 발행인)가 바깥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교회 비판을 이어갔다. 이 목사는 강의 석 씨가 제기하고 있는 미션스쿨 내에서의 종교 자유 주장과 관련, “강의석 군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고, 미션스쿨은 종교 교육의 자유를 주

장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맞붙은 것”이라며 “강의석 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부터 교사, 학생 선발권, 종교 교육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그런 중에 강의 석 군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치 우리 자녀들이 불교학교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는 천안살림교회 최형목 목사와 중앙대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포교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적 종교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 심지어 이단도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사회법에 어긋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얼마든지 포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목사는 현 미션스쿨의 이 같은 딜레마와 관련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 대안학교로 가는 것”이라며 “나라의 지원은 못 받는 대신에 학생 선발, 교사 선발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확립화된 커리큘럼을 고쳐서 원래의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목사는 반공, 승미주의에 빠진 사칭 앞 집회, 교회의 기업화, 주임식이고 일방적인 설교 등을 거론하며 “고상한 기독교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목사가 내놓은 대안은 통전적 복음, 개교회주의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 나아가 지구 생태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생목협의 활동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열린자세 필요

이날 유독 눈에 띈 것은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성구 교수는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일어난 목사들의 삭발은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목사들이 꼭 그렇게 나서야 했다.”라고 반문했다.

이문식 목사도 “한국 사회는 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분열을 조장했다”며 “가장 큰 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삭발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외부에서 보면 교회가 자기 이득 찾기에 치우쳐 집단 이기주의적 기독교로 인상 지어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사학법 재개정운동에 앞장 섰던 예정통합 목사들. 하지만, 목사들 중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비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참석자 중 몇 사람은 “교회 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비판이 더무니없는 것도 있다”며 대처 방안을 물었고, “종교간 대화 없이 한국 교회가 사회 평화의 기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에 이성구 교수는 “제가 고신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와는 연합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주의로 낙인 찍혔다”며 “지난 4월 대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예정통합 쪽의 한 교수는 ‘통합측, 감리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고, 거기에 고신 교수들이 동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가진 자, 다수라는 걸 염두에 안두면 목회도 실패한다.”며 한국 교회에 열린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백년전 필립이 백년후 비난으로

이문식 목사도 “가톨릭은 끊임없이 앞서가는 태도를 내놓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개신교는 자원은 많지만 흩어져 있는 게 문제”라며 “기독교에 대한 편향적 보도 등에 대해 앞으로 한기총과 NCC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한국 교회의 탈출구와 관련, “특별한 답이 없다”며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해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하게, 오래 갈 것임을 내비쳤다.

KNCC 권오성 총무는 ‘한국 교회에 대한 도전과 응답’ 제목의 강의에서 “현실 교인과 일반 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세상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매일 한 사람당 1kg의 탄산가스 감소, 북한 동포 지원에 동참하기, 무기 장난감 추방운동,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농간 연대 활동,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강의에 앞선 예배에서 생목협 전임회장이



손인웅 목사
생목협, 상임회장

자 예정통합 총회장인 김영태 목사는 설교를 통해 “100년 전 교회는 필박을 받았지만, 100년 후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문제”라며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무종교는 63퍼센트에 이른다”고 말하고, “그들 중 종교를 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는가? 란 질문에 65퍼센트가 ‘기독교’를 택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며 “반면에 한국 교회엔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 중에도 쪽통도 아닌 모조품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순절새 역사를 창출하는 모란순복음교회

21세기 한국교회 찬양을 이끌어가는 모란순복음교회 찬양팀



담임목사 양 병 열

한세대학교 신학과(군포소재) 84학번
한세대학교 목회대학원(M. Div) 졸업
미국 International College(M. 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성서학)
순복음총동문회 협동총무
한국 교회 비전 클럽(KCC) 총무
순복음총회 신학원교수
국민비전 부흥사회 공동회장
순복음부흥사회 실무총무
세계 복음화협의회 공동회장
순복음영성 훈련원실무위원
모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성전 조감도 ▶ 성남시 분당구 여수동 153번지 904평(분당초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56번지 Homepage : www.moran.or.kr E-mail : moranch@hanmail.net

Tel.(교회)031-753-6011,(사무실)031-722-5331,(목사관)031-753-6012,(FAX)031-753-5332,(H.P)011-718-5331

지역성시화에 전념하는 ‘홍성제일교회’ 교회를 영적제자화로, 지역을 성시화로

머 리 글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라는 교회 표어를 주제로 하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홍성군을 성시화하고자 하는 당찬 계획을 이루기 위해 봄이 아직 먼 겨울 문턱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보았다. 충남 홍성군 옥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담임 오종설목사)는 계절을 앞서 파종전도를 하는 교회다. 현재도 지역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500명성도가 출석하는 중형교회임에도 지역을 성시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로 늘 북적대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이다.



교회의성장은 지역 성시화 통해

장년부를 비롯하여 어린이 주일학교 등 500명이 출석하고 있는 홍성제일교회는 “답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홍성제일교회”(행4:31)를 교회의 표어로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행2:42~47)를 주제로 하여 앞으로 출석 성도 1000명 목표와 50구역 확장과 10명의 팀 사역자를 세우는 일, 홍성과 충남,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일, 380가지 기도대 대한 응답을 얻는 일, 성전 대지를 구입하는 일, 등 네 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여 10만 홍성군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켜나가는 준비된 교회이다.

오목사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의 권유로 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1989년 8월 15일 집사 1명 주일학교 유초등부 7명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였다.

기장교회가 없는 홍성지역에서 교회개척을 시작한 오목사는 개척 초기 정말 힘들었다고 말한다. 당시 워낙 어렵다보니 당시 월세 5만에 얻은 연탄아궁이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이 8평쯤 되는 창고를 얻어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 목사는 개척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성장이 기관목회 즉 지역을 성시화 하는데 있었다고 말한다. 홍성에 들어와 교회를 설립한지 18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으며, 교회성장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홍성제일교회가 지역 성시화와 충남 서해안지역, 민족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데는 오목사의 남

다른 목회관이 있기 때문이다. 오목사는 개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선교를 비롯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에 헌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선을다한 제자훈련이 교회성장비결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 비결은 제자훈련입니다.”

오목사는 교회를 설립하면서 즉시 집사 1명을 집중적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왔다고 한다. 한명의 전도훈련으로 교회는 전도가 되었고 교회부흥의 제자훈련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제자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으로 교회가 더욱 탄탄해지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되었습니다.”

오목사는 1명부터 시작한 제자 훈련이 지금은 그룹별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단계 기도훈련, 2단계 말씀훈련, 3단계 전도훈련, 그리고 중급 제자훈련으로 새생활세미나 1년 과정이 있고, 고급 제자훈련 영적군사훈련 등으로 3단계 신앙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직 목양일념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성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년 중 행사로 신년축복성회, 부활절 축복성회, 추수감사절 축복성회 등 성도들의 영성을 위하여 18여년이 넘도록 부흥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한다.

오목사는 이와 같이 영성훈련이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해 민족통일복음화협회(총재 고 신현균 목사)가 주최하여 천안 성민수양관에서 개최된 영성훈련 수련원 2단계 부흥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여 부흥신대원 제 1기로 졸업하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을 목회에 접목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홍성제일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그리고 부흥회를 통한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94년 3.13일 대지를 구입하고 조립식 건물을 세우게 되었으며, 1997년에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충남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의장

충남목회개발원 개원 예정

오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막바지에 와있는 충남 목회개발원 개원이다.

충남목회개발원은 1997년도에 충남지역 초교과 사모세미나가 계기가 되어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면서 계획해 왔던 것들로 충남 목회자 사모대학, 초교과 교사대학, 서해안 복음회를 통한 청소년운동개발원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충남목회개발원 산하에 있는 충남 사모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4학기를 두고 1기생 2학기를 하고 있고 23명의 학생들과 유명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어 있다.

여기에 젊은 30대인 목회에 정진하고 있는 참신한 목회자들과 팀워크를 이뤄 훌륭한 박사들과 강사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하며, 농어촌교회에 맞는 세미나를 하여 100명 돌파 세미나, 200명 돌파 세미나, 300명 돌파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인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네 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1. 교회성장 부분 목회대학 2. 사모대학 3.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문화개발 4. 기독교 교육부분 대학, 이와 같이 네 파트를 상설기관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할 예정이며 이미 이것도 부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의 평생 좌우명 “승부를 걸어라”

오목사는 목회여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정하여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었다.

첫째, 교회가 그 지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 목회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역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홍성제일교회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도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경찰서, 교도서, 군청, 군부대, 학교, 언론, 복지관 등 복음화에 주도적인 역할에 있어서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민족복음화에 있습니다.

민족복음화는 대 도시 교회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시골교회에서도 민족복음화에 비전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 성도는 이 시대에 바람직한 교인이 되지 못하고, 힘이 없습

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이 바로 된 교회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꾸준히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팀사역 통해 운동력 있는 교회로

“저는 평소 잠언 27:23절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과, 고전 10:31절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위의 두 구절을 좌우명처럼 여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고 말하는 오목사는 홍성제일교회의 자랑을 평신도들의 열심에 두고 있다.

부교역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12개 팀으로 조직된 평신도사역 팀이 교회부속실에서부터 새가족양육팀 등 파트별로 나누어져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참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목회에도 힘이 난다”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축
창간

건강한 교회~

홍성제일교회

오종설목사 외 성도 일동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7:8]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성제일교회**
www.hsjeil.org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TEL: 사무실 041-634-0441 목양실 041-633-9146

「오산반석교회」설립 3주년 기념 이전감사예배

지난 10월 28일 오산반석교회(김봉주목사)는 설립 3주년을 맞아 성전 확장 이전예배를 드리고 오산을 성시화의 초석을 삼아 복음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김봉주목사의 사회로 임문길목사(팔복교회)가 기도, 최원우목사(주향교회)가 성경봉독, 험시버리십선교단의 특별찬양, 김양식목사(수원노회장/매탄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란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어 이진해목사(수원노회서기/신영통제일교회)가 기도, 신영배목사(아름다움교회)가 권면, 황의봉목사(평안교회), 김두현목사

성시화 초석삼아 빛과 소금 역할 다할 것



(21세기 연구소소장), 송민섭목사(오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오산감리교회), 이기하 오산 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사국 목사(수원선상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김봉주목사는 “처음 가정에서 예배로 시작해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3년 만에 성전을 확장해 이전하게 된 것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제 앞으로 오산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오산시 성시화에 앞장서 헌신할 것을” 천명했다.

성령교회, 창립 24주년 ‘대성전입당예배’

경기도 광주 소재 성령교회(엄기호 목사) 새 성전 본당 입당예배가 11월 8일(목) 오후 7시에 있었다.

이날 예배는 엄기호 목사의 사회아래 이종혁 장로의 기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 조용기 목사의 설교, 조용목 목사(은혜와 진리교회)의 격려사, 김성광 목사(강남교회),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지역구)의 축사가 있었으며, 나경일 목사(주안감리교회), 오관석 목사(서울중앙침례교회) 등 각계 인사와 교계 중진 목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용기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주신다. 꿈이 현실

‘조용기목사 초청 감사예배 드려’



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령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뜨거운 신앙 속에 성장한 교회로서 성도 100만 명의 부흥을 비전으로 ‘경기도민 1천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북한 7천

만을 하나님의 품으로! 세계 6억을 예수님의 품으로!”라는 교회 목표를 세우고 새 성전 입당의 거룩한 행진을 해왔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도곡교회, 임직감사예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교회가 최종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백종용 목사를 위임목사로 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수도노회(노회장 송학열 목사) 소속으로 지역복음화를 위해 노력해 온 도곡교회의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임직식, 3부 최종임목

어가진 3부에서 원로목사 추대를 받은 최종임 원로목사는 답사에서 “부족한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데 대해 감사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종용목사는 위임 인사에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낌없이 사랑과 지도로서 돌보아 주신 최종임목사님께 감사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

‘새생명축복교회’ 성전 봉헌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받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새생명축복교회(강은숙 원장)는 11월 26일(월) 오전11시에 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번 봉헌예배를 드리게 된 새생명축복교회는 세계신유복음선교회 강은숙 원장이 서울지부 예배처소로 설립했으며, 익산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순천지부 등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 예배처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뤘다.

박종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강석진 목사(금천소망교회)가 기도, 이환곤 목사(새생명축복교회)가 성경봉독, 중경노회장 김동만 목사(상록교회)가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받자”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건축위원장 서병준 집사가 건축경과보고, 박종일 목사가 헌당기도 후 강은숙 원장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김봉용 목사(성서교회)가 축사, 지덕 목사(서울강남제일침례교회)가 격려사, 김진환 목사(은평순복음교회)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다.

세계신유복음선교회 원장 강은숙 목사는 “오늘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내일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인사말을 했다.

‘향기로운교회’ 설립 7주년 기념 및 성전헌당예배

지역 사회 이끌고 세계선교 앞장설 것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중앙노회 향기로운교회(정일량목사)가 지난 11월 10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에 성전을 이전하고 헌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도들과 중앙노회의 많은 동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희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부노회장 손찬환목사가 기도를, 중경노회장 임철환목사가「보화를 찾자」는 제하의 설교를 한 후 건축위원장 손경현 안수집사가 건축결과 보고와 함께 열쇠증정과 헌전사를 하고 담임 정일량목사의 수전사가 있었다.

이어 인도자 신경희목사가 헌당교독문을 낭독한 후 담임 목사가 헌당기도와 공포를 하였고 이어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총회장 박준택목사가 축사가 있었으며, 고정자목사, 이인순목사, 김광준전도사 등이 각각 축가와 국악과 뚝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후 중경노회장 김용진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자”

서남교회 창립 5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청주 서남교회(당회장 김원영목사)는 교회창립 52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남교회 다윗성전에서 52주년 감사예배와 장로 권사 은퇴식을 거행하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김원영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중경노회서기 민강기목사의 기도와 청주복시찰장 이정우목사의 성경봉독 총북노회장(청주서교회) 김기섭목사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란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주의나라 위한 새시대 열어갈 것

사 원로목사 추대, 4부 백종용목사 위임, 5부 축하와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곡 회산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에 이



축
창간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저스타임즈의 뜻 깊은 창간에 무궁한 발전과 한국 최고의 기독 언론지요, 정론지가 되길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선교총회

www.rpk.or.kr

총회장



김윤기목사

부총회장 : 박영남 목사

서기 : 한승관 목사

부서기 : 김영실 목사

회록서기 : 강동규 목사

총무



박남수 목사

부회록서기 : 조은자 목사

회계 : 이봉룡 목사

부회계 : 박석진 목사

감사 : 정원기 목사, 김홍수 목사

서울 종로구 효제동 51-3번지
Tel : 02)743-5779

이재정 통일부총리 한기총 내방

■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성과 설명

이재정 통일부총리가 한기총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12월 7일에 열리는 금강산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준공식에 이용규 대표회장을 초청했다.

11월 27일(화) 오후 2시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한 이재정 부총리는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계가 남북관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여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남북한이 이번 회담들을 통해 협력관계를 넘어 공동개발과 번영을 위한 직접 투자가 이뤄지는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는데 있어 교계가 다방면으로 협력해 주심에 감사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평화수역화 방안과 도로와 철도에 이은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통행과 통신 및 통관에 대한 남북관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수시 정상회담

및 6개월마다 총리회담을 합의하고 남북상주사무국을 설치해 내년 부터 상주직원을 배치하는 등 남북간의 대화의 틀을 체계화·제도



화·정례화 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오는 12월 7일에 열리는 금강산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준공식에 이용규 대표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 핵 불능화가 투명하게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가 이

뤄진다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완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

극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에 나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압도적 열세인 북한에 대한민국의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방문한 한기총은 최희범 총무와 정연택 사무총장 그리고 박종언 예방합신 총무 등이 배석했다.

불법체류단속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난입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을 붙잡기 위해 예배당 안까지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잉단속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한국 교계 및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추수감사절에 행해진 교회난입 사건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

‘서울외국인의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이선희 목사는 사진 경과

보고에서 “25일(일) 발안의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에 자리한 ‘중국인교회’ (목사 김해성)에 법무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교회 안으로 난입했다”고 밝혔다. 김해성 목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권력 행사란 미명 아래 행해진 성소침탈과 선교방해를 방지한다면 외국인노동자와 교회들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철승 목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정부의 과잉단속

구두 발에 짓밟힌 예배당

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났으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과주의 법집행이 낳은 비극”이라면서 △불법적 성전침탈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사죄 △진상조사 후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주노동자 피해자에게 치료 및 배상 △강제단속추방 중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기총과 KNCC, 종교탄압 항의 및 규탄

한국 개신교의 최대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기총)와 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이번 사건을 한국교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항의 및 규탄에 나섰다.

한기총은 27일 법무부에 보낸 항의 공문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당에, 교회 단속반원들이 적절 한 절차 없이 구두발로 난입했다”면서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옹 시행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에 대한 답변을 3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KNCC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종교탄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교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더 이상 종교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출입국, 교회 난입 부인

수원출입국 관계자는 27일 전 화통화에서 “매일 2회 시행되는 길거리 주말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특정단체를 표적한 단속은 아니었다”면서 “침자가도 없어서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일반 상가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는 수원출입국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자원봉사 한국어 선생인 김성식 씨(28)는 “단속반원들은 2층 예배당 안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왔다”면서 “예배당은 누구나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곳이지, 나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 모두 신발을 벗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수원출입국 관계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유린이자 한국교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모독행위”이라고 규탄했다.

한기총은 또한 교회 난입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주일 에 시행할 것인지 여부 △단속반원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교회에 난입하여 단속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2010년 재외동포법 균등적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 헌정’

성령백년 기념비 제막, 성령백년 타임캡슐 매설

2001년 11월 CCMM 우봉홀에서 창립하여 한국교회에 평양장대현교회의 성령강림 100주년을 고지시킨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총재 피종진목사, 대표대회장 김성길목사)가 6년간의 성령대장정을 마치고 2007년 11월 23일(금) 순복음부평교회(위임목사 장희열)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 성령100인 헌정식을 갖고 성령백년 기념비 제막과 성령백년 타임캡슐 매설식을 가졌다.

성령역사 일백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헌정식 행사는 임종달목사의 사회로 명예헌정위원장 민경배목사가 에스겔 47:6~12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소성시킨다”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였다. 민목사는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이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에 뻗어 나갔다”며 “물로 바위를 깰 수 있듯이 교회가 세계를

소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헌정위원장 피종진 장희열 목사가 2001년부터 시작된 6년간의 성령대장정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성령 일백년을 향한 헌정사를 전하고 성령일백인 선정자에게 헌정서를 전달하여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과 성령 일백인을 헌정하였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영진 장로가 축사를 전하고 소프라노 강명숙이 오페레타 길선주 중에서 알아랑 ‘기쁨의 눈물’로 헌정사를 부른 후 헌정위원 안준배 목사가 헌정문을 낭독하였다.

이어서 한국선교역사기념관 앞마당에서 박응순목사의 사회로

성령백년 기념비 제막식과 성령백년 타임캡슐 매설식이 진행되었다.

성령백년 기념비에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을 바라봅니다. 향후 백년 2107년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라는 과거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와 내일의 한국교회를 잇는 한국교회의 성령백년역사와 헌정위원 편찬위원의 43인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성령백년 타임캡슐에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신학 심포지엄 자료와 100주년관련 신문기사, 오페레타「길선주」CD와



악보집, 공연실황,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 준비과정과 본 성회에 사용된 현수막과 초청장 기념품등의 자료를 모아 매설하였다. 성령백년 타임캡슐은 백년후인 2107년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성령일백인 헌정자의 후손이 모여 개봉한다.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

헌정위원회의 명예헌정위원장은 조용기 김삼한 민경배 목사이고 헌정위원장은 피종진 김성길 장희열 목사이다. 헌정위원은 강현식 권태진 김동엽 김용완 노희석 민규식 박남용 박응순 소강석 손학봉 안준배 엄신형 유순임 유재필 이재창 임종달 장항희 주남석 최낙중 한영훈 목사이다.

성령100년사 편찬위원은 강근환 고무송 김명혁 김문환 김삼한 김성영 김의환 김인수 김흥기 도한호 박명수 박응규 박이도 오덕교 이영훈 주재용 최종민 박사이다.



www.worldshare.or.kr

제3세계 구제선교기관 World Share



베푸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19년 전 한국의 인천관갯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사랑발화가 이제 제3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월드쉐어를 설립했습니다.

내전, 전쟁, 가뭄, 기근, 질병, 고문, 학살... 지금이 시기에 60억 세계 인구 중 10억은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영양실조로 눈이 멀고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희생자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입니다.

10센트 동전 하나면 비타민A를 제공하여 한 어린이의 실명을 막을 수 있고, 1불이면 하루, 우리의 한 끼 식사비용이면 열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제3세계 어린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호품이나 현직 봉사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월드쉐어 주요사업

- 국내
 - 1:1 결연
 - 무의탁아동공동체(고아원)운영
- 중국
 - 불우청소년 학업지원
 - 양로원 운영
 - 빈곤가정지원(1:1지원)
- 방글라데시
 - 의료, 고아원 교육지원 사업
- 인도
 - 고아원, 교육지원 사업
- 필리핀
 - 고아원, 양로원, 장애지원 사업
- 케냐
 - 지역개발사업
- 나이지리아
 - 고아원, 양로원 지원운영
- 미국
 - 홀리스지역
 - 홀리스교회
 - 무료급식
 - 긴급구호

문의전화 02-2683-9300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135-67

한기총 총무협, 신임 회장 송태섭 목사

뜻 모아 한기총 발전에 소임을 다할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는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송태섭 목사(고려개혁/수원경원교회), 부회장에 조병선 목사(합동정통)를 선출하는 한편, 한기총 발전을 위한 화합과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송태섭 목사
한기총총무협회장
수원경원교회시무

한기총 총무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간선제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한기총과의 대립 양

상으로 비춰졌던 점을 감안, 이제부터 한기총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관 개정 위원을 선임해 정관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총무협은 정관 개정과 관련, 그동안 직선제로 실시해 오던 회장 선출 방식을 다음 회기부터 간선제를 채택,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결의 했다.

신임 회장 송태섭牧사는 "한기총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총

무협의회의 화합과 각 교단 총무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선 "총무협의회가 중심을 잡고 한 사람이 기뻐할 인물이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목사 부회장:조병선목사△△장로 부회장:이은봉 장로 △서기:박종언 목사 △부서기:유바울 목사 △회록서기:박광철 목사 △부회록서기:장승현 목사 △회계:김창수 목사 △부회계:서정숙 목사 △감사:허광수·김동락 목사

제1회 한국기독교여성 700만 총 화합 창립예배

장애우 400만, 소외된 자 1000만과 함께하는
함께 가자! 희망의 세상 속으로..! 사랑의 피플 속으로..!

장애우 400만과 소외된 자 100(만인)과 함께하는 제1회 한국기독교여성 700만 총 화합 창립예배가 11월 30일(금) 오후 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표대회장 권영자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정도출목사(상임대회장)의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김명숙목사(총재)가 대회사를, 배타선목사(부총재)가 대표기도를, 이광선목사(예장통합직전총회장)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으며, 전국지부장 소개가 있는 후 한영훈목사(한영신학대학교 총장), 박천일목사(한기총전총무)의 축사, 지덕목사

(한기총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김경자목사(서울동부교회), 박영인목사(실무공동회장)의 특별기도와 연신형목사(중흥교회), 장광영감독(금호제일교회)의 주제 설교가 있었으며, 이종순목사(상임부총재)의 선언문 발표와 임은선목사(상임공동회장의 결의문 발표가 있었다.

이어 권영자목사(대표대회장)와 김성수회장(운영대회장)의 답사가 있었으며, 김남심목사(경기하남지부회장)의 결의문 낭독 후 홍보대사 위촉식과 장학금 및 생활복지지원금 전달식이 있었고 함께 대합창을 한 후 피종진목사(고문)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대표대회장 권영자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본 대회는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여성 700만이 깨어나 하나 되자는 뜻"이라며 "400만 장애우와 550만 소외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복지사회를 구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주표목사 노선협 제5대 대표회장취임

1천만 노령 고령화 시대, 소신가지고 헌신할 것



한국기독교 노년선교협의회(노선협)는 11월 9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홍주표목사가 제 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이준영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윤영이사 조나단목사가 기도, 윤영이사 손윤진목사가 성경봉독을, 복음가수 유연희목사(한국기독교부흥예술원)가 특송을, 명예총재 엄신형목사가 설교를, 여성상임회장 김민순선교사가 봉헌기도를, 21세기 세계교회 연합회총재 이능구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정통)총무 조병선목사, 한국노인복지회총재 손석익목사가 격려사를, 국민일보 사목 송정환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순장)총회장 지복남목사, 예장합정 총회부흥사회 대표회장 조성철목사, 민족복음화 부흥사회의 대표회장 정병두목사, 월드미션 부흥선교협의회 부총재 송미현목사 등이 축사를 한 후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윤영이사 장사무열목사, '노선협 발전을 위하여' 윤영이사 정경표목사가 기도, 하였으며 총재 고종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사무처장 박창윤목사(사회로 2부가 진행되고 취임패 및 임명장수여가 있었으며 장미자사모가 축가 후에 대표회장 홍주표목사의 취임사로 마쳤다.

대표회장 홍주표목사는 "말려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1천만 노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 농촌을 돌며 노인복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일 부흥성회를 구상하고 있고 의료봉사(치과 및 침술)와 이.미용봉사, 영정사진 무료촬영, 일일 지역전도 후원 등을 기획하고 호스피스양성 및 후원지역까지 소신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했다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신임총회장 당선 축하예배

대표회장 이준원 목사, 상임회장 최상열 목사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교단협) 제22대 대표회장 이준원

목사, 상임회장 최상열 목사 취임 및 회원교단 신임총회장 당선 축하 감사예배가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1000여명의 축하객과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한영 목사(개혁합동총회장)가 기도, 임재식 목사(예

장합동총회 총회장)가 성경봉독, 이억주 목사(칼빈대학교 교수)가 "참된 지도자상 모세"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준원 목사와 최상열 목사가 취임사를, 임종만 목사(고신증경총회장)가 격려사, 이상득 의원(국회부의장), 오충일 목사(대통합민주신당대표), 정지강 목사(대한기독교서회 사장)가 축사를 한 후 축하패 및 공로패를 증정하고 김태윤 목사(예장고려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충북 충주시 봉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봉방제일교회(김육근목사)는 최근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아 성전입당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충청노회장 이연희목사가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이어 가진 2부 임직식에서는 이흥무성도가 집사로, 박영선 황길성 성도가 안수집사로, 박태근 신금순 김영희 성도가 각각 권사로 취임하였고, 심재천 성도가 명예권사 추대를 받았으며, 한발교회 원로 박기수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민복예능, 대표회장 이기안목사 취임

'생명 걸고 예수 능력 전할 것' 다짐

민족복음화예능능력부흥사협의회(이하 민복예능) 대표회장 이기안목사(안양 주은혜교회)가 지난 11월 26일(월) 저녁 대표회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기안목사 사회로 진행된 1

하는 초석"이라며 "이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복예능은 앞으로 정기적인 성회를 개최하여 지역마다 복음의 능력을 심어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



부 예배는 서누가목사(창대교회/민복예능실무회장)의 기도와 신항기목사(예향교회/민복예능실무회장)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태희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가 설교를 하고, 대표회장 이기안목사의 인사와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사무총장이 광고를 한 후 이태희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취임한 이기안 목사는 "민족의 복음화는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구원

할 계획이며 우선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재 이태희목사 초청 특별성회를 안양 주은혜교회(이기안목사 사무)에서 26일(월)~28일(수)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이태희목사, 배진구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순호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실무회장), 이기안목사가 등단하여 은혜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이 있는 교회

부설 : 비전 어린이 집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담임 강삼열 목사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 3동 121-17

☎교회 : 032)868-2799 / 어린이집 : 032)865-27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벽성교회

성전투지도



위임목사 조성훈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45번지

T. 031)611-9755, 8979 / F.031)667-3991

예성 총회사복위,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교회 내 복지시설운동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성 총회 사회복지위원회(이하사복위/위원장 나세웅목사)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성결대 신우관에서 '교회의 복지시설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승철(성결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장)교수와 이영실(성결대,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장)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정소(책키북키아동센터 대표)목사의 '아동복지시설', 신민선(군포시노인복지회관장)목사의 '노인복지시설', 김병천(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경기도협의회장)목사의 '자원 활용의 실제', 윤현영(희망선교회 대표)목사의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제목의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사례 발표 후에는 15분가량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되어 평소 교회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사회복지위원장 나세웅(신림동중앙교회)목사



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사복위 사무총장 정기복(생명샘교회)목사의 대표기도와 부위원장 김기환(등촌제일교회)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고, 이어 총회장 신화석(안디옥교회)목사가 '사회복지와 교회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에는 증경총회장 강운조(문래동교회)목사의 격려사, 성결대 총장 정상운교수의 환영사, 교단총무 허광수목사의 축사, 사복위 총무 이광열(마조교회)목사의 내빈소개, 증경총회장 강요구(등촌제일교회)목사의 축도 등이 있었다.

한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평소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시간 및 거리 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교단 목회자들을 위하여 세미나 교재를 전국교회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외 관련 교단총무 허광수 목사는 "그 동안 뜻은 있었지만 복지시설 운영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가 사회복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장(개혁)총회학술원 총동문회 집중교육 개최

‘총회아래 하나의 동문 되어
복음사역 앞장설 것’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회장 박영희목사)는 총회학술원 '제3차 총동문회 조직을 위한 집중교육'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소재한 핵심교회(학술원장/이선목사)에서 가졌다.

앞서 총회장 박영희목사는 "총회 총동문회를 구성하고, 각 교파 신학교에서 졸업한 목회자들의 학점을 본 총회 직영신학인 총신의 졸업년도에 맞추어 학적

복원을 하여 명실 공히 한 가족, 한 동문이 되기 위하여 제3차 집중교육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 반드시 이 재교육을 거쳐야 하며 하나의 총회아래, 하나의 동문이 되어, 장자교단의 일원으로 한국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하여 단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길자연 목사, 총장 취임

서울 왕성교회 당회장 길자연목사는 지난 12월 5일(수) 오전 11시 용인 칼빈대학교 대강당(은천당)에서 많은 교계지도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예배는 김진웅목사(이사장/목회학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문식목사(총동문회이사장/선교학박사)의 기도, 이남철목사(이사장/목회학박사)의 성경봉독, 칼빈대학교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총회장 김용실목사가 "엘리아와 선지생도"란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어 가진 총장 취임식은 려용덕목사(준비위원장/법학박사)가 약력 소개를 한 후 총장 길자연목사가 취임서약을 가졌으며, 사회자의 총장 취임선포와 총장 취임패 전달이 있는 후 총장 길자연목사가 취임사가 있었다.

이 후 박신봉목사(총동문회장)가 총장취임 축하패를 전달하였으며, 김의환목사(직전총장), 이성택목사(증경총회장), 박종순목사(송실대이사장), 김영진장로(국가조찬기도회회장 농학박사) 등이 각

각 축사를 하였으며, 이현정 총장(호남대), 김동권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강평 총장(서울기독교대총장) 등이 격려사를 하였다.

또한 박종구목사(월간목회/선교학박사)가 축시를 낭송하였고, 려용덕이사장이 휘호를 증정 하였으며, 조명희 교수(교회음악과장)



의 축가와 임종곤목사(이사회서기/상임이사) 인사가 있는 후 이주영목사(명예총장/신학박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취임한 길자연 총장은 현 서울 신림동 왕성교회 당회장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83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도의 불길을 온 세계로"

제1회 목회자사모세미나, 평화의동산에서

2007' 제1회 목회자사모 세미나가 충남 공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목사)에서 11월 5일(월)~6일(화)까지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기도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사)순성세계복음화선교회(이사장 피종진목사, 회장 이성자사모)가 설립 후 첫 번째로 갖는 세미나로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모여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다.

원장 피종진목사는 환영사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목회자 사모



들을 격려하고 평화의동산에서 1박 2일간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려고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말하고 "사모님들의 기도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피목사는 남서울중앙교회와 사단법인 순성세계복음화선교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금번 평화의동산 제1회 목회자세미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면서 사모님들의 기도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 목사님들의 목회사역에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더욱 못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했다.

부천성도중앙교회 한소망노인대학 4기 졸업식

"배움의 길 포기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졸업"

한소망 노인대학 제5기 졸업식 감사예배와 겨울방학식이 11월 27일 부천성도중앙교회(담임 박성욱목사) 3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졸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남숙 부장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교사일동과 임금숙 강사가 특송을, 이사장 박성욱목사가 "성도의 상급"이란 제하의 설교를 하였으며, 류영학목사가 축사를, 월드미션문화신문 손재규목사 격려사를 한 후 김상봉목사가 축도를 함으로서 예배를 마쳤다. 한소망노인대학 이사장 박성



욱목사는 이날 시92편 12~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메시지를 통해 노인들을 위로하고 가정의 화목과 참된 신앙생활을, 또는 내

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을 염려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고 23명이 졸업식을 가졌으며 명예로운 사각 모자를 쓰고 수료증을 받아든 노인들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졸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명임, 배관조, 서순월, 이정순, 임흥옥, 김정애, 양말래, 이부월, 이재형, 이준주, 장규엽, 정금순, 김영호, 가옥자, 권석순, 김연순, 김옥자, 이인순, 김윤환, 김령덕, 정경순, 이정숙, 최성숙

MAGISTELLA, Arts Asia Pacific and Pieter Toerien Productions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Proudly Present

JESUS CHRIST SUPERSTAR

The Last Seven Days in the Life of Jesus of Nazareth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삶을 그린 스테디셀러 뮤지컬

뮤지컬 지저스 크리스트 수퍼스타

국내 최초 오리지널 내한공연!!

2007.12.12 ▶ 18 수퍼스타돔 잠실실내체육관

부산공연 2007년 12월 21일~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공연예매 인터파크 1544-1555 티케팅 1588-7890

제작 MAGI+STELLA Liveplus SEOL & COMPANY AAP

www.musicalsUPERSTAR.co.kr

독자칼럼

악인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

오늘 김경준 BBK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속 시원함보다는, 그 동안 온 나라가 일개 사기꾼인 김 씨의 사기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며 열 번도 더 넘는 위조문서를 만들어 사기를 치고, 수백억 원의 돈을 날려 5,2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을 울린 사기꾼의 한 두 마디에 나라가 결판이라도 날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지난 20여일을 돌아보면 이 나라 정치·사회지도자들의 꼬락서니에 그야말로 뒤틀림이 없어진다.

이 사기꾼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소모한 에너지가 대관절 얼마인가? 이 소모된 무형의 정신적 에너지는 제쳐두고서라도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간 세금, 소송비용, 언론비용, 관계자들이 지출해야 했던 비용 등은 과연 얼마인가? 아니 앞으로 이 사건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할 비용은 또 얼마나 더 될 것인가?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대부분 대통령후보자들이 검찰의 발표를 조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구치소에 있는 사기꾼이 몰래 쪽지에도 몇 마디 써서 가족에게 주었다는 메모를 근거로 하여, 민주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이 애써 조사하여 발표한 것은 모조리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다. 검찰이 김 씨를 회유했다는 메모 내용에 대해 김 씨에게 추궁했다니 “내 느낌이 그러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런데도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악한 사기꾼의 말을 검찰의 말보다 더 믿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떠들며 다니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다. 전남 광주광역시에 사는 어떤 유권자가 열 두 명의 후보자들 중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기호 13번에 자신 이름이라도 써 넣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는 말에 공감이 된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산업과 민주화를 거치며 사람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오늘의 정치꾼들을 보면 오히려 시대가 역행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꾼들만 욕할 것도 아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인본분력도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고신 신대원의 한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시험지 조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가장 뛰어나야 할 신학교수들 중에는 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편든 교수가 있었다(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난 고신 제57회 총회 시 총대들 중에도, 그 교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대원 교수회가 조사하고, 총장이 임명한 대학 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총회가 뽑아 세운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범죄사실 확인)보다 범죄자의 거짓 변명을 더 믿어준 총대들이 상당히 많았다(겨우 한 표 차이로 유효가 결정되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말세에는 혼돈의 영이 횡행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영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 선과 의에 대해 맹목이 되게 만들고 있다. 성경과 말씀의 빛 아래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선을 악이라 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흑백까지도 분별이 안 된다. 정치란 참무서운 필요악이다. (제국/코라탐에 닛킴)

‘종교계는 2007년 대선에서 중립을 선언하라’

한국교회언론회

2007년 제17대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에 없는 혼탁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범 종교단체는 우리나라의 政治史 이래로 잘 지켜온 정교분리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다짐으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기를 촉구한다.

금번 대선에서 종교계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먼저 대선후보들의 각 종교계 방면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종교단체들이 유력 대선후보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종교가 현실정치에 초연하지 못하여 정치적인 過誤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높은 가치에 대한 저평가와 함께, 종교계에 대한 기존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

다.

또한 종교 간의 후보자에 대한 好 不好를 드러내게 된다면, 자칫 어렵게 지켜온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는 깨어지고 종교 간의 대립양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이념간의 갈등보다 종교 간의 갈등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써 종교 간의 노력으로, 특별한 갈등 없이 각 종교 본연의 일을 감당해 오고 있다는 평가이다.

2007 대선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예견하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단순히 통치자 이상의 중요한 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종교계가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 그렇다면 더욱 정치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일에

대한 충고와 함께, 지혜로써 돕는 것이 현명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여러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성숙을 위한 고통을 경험하였으므로, 대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선진화되어가고 있다. 다만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이런 높은 의식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그 같은 현실에서 종교계는 금번 대선이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협력과 화해, 그리고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금번 대선에서 범 종교계는 슬기롭게 처신하여, 민주정치의 목표와 종교 목적이 갖는 공동가치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일에 또 하나의 주춧석(柱礎石)을 놓게 되기를 희망한다.

“장로·권사 임직헌금 관행 바뀌어야”

자발적 소액·물품기증보다는 갈수록 큰부담

인천 A교회에 출석하는 J집사는 안수집사 임직식을 앞둔 며칠 전 교회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청을 받았다. 일정액의 헌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명목은 새로 임직을 받는 장로·권사·안수집사가 돈을 각출해 전자오르간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 “우리 교회는 아녜 줄 알았는데...”

실망한 그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찾아 상담한 뒤 “직분과 돈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의 글을 당회에 제출했다.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 일정액을 헌금하는 관행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의 힘을 얻고 있다. 인천 A교회처럼 당회 차원에서 임직시 돈 받는 관행을 폐지하는 교회도 늘고 있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교회 신뢰회복을 위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임직 헌금’ 관행은 임직자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기증하거나 소량의 금액을 내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었다. 자발적이 아니라 반 강제적이고, 금액도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교회가 ‘직분 장사’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낳고, 임직을 받는 이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열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헌금한 사람은 예외지만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덕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회신뢰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 백종국 교수(정치행정학부)는 “당초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서 이치법 폐해가 발생하는 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당회 등에서 임직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헌금은 금지하는 방안을 각 교회가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 성전 건축 등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고 공정한 과정을 고민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PHOTONews

서울은평구 신사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합)임배경락목사는 지난 신임될 한 달 라면에 생활할 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교인이 라면 모으기 운동을 해 어려움 이웃들에게 라면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후원:민화만가창창제회

라면에 사랑 싣고
※ 기증 물품: 사랑 싣는 라면 (남대문로역)
※ 기증 기간: 2007년 11월 1일부터
※ 기증 장소: 6층 사무실(합) 및 4층 비전포럼(주)로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기증한 라면을 도우미 필요한 분들에게나 기관에 전달해 주어 주신 기증을 피로와 함께 보내 드리고자 하기 위한 작은 사랑 싣는 운동
서북교회 ☎ 373-3820



북한의 통일교 시설물 이용 말자

남측 평화자동차그룹이 북한 평양에 짓고 있는 ‘세계평화센터’ 건물이 10년 만에 완공됐다. 세계 평화센터(이사장 박상권)는 평화 자동차가

북한의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 보통강변에 1997년 공사에 착수한 초현대식 국제컨벤션센터다. 연면적 9062㎡, 건평 4659㎡, 지상 6층 규모의 세계평화센터에서

도 양성하고 컴퓨터 관련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대표회장 최재우 목사)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사진)는 “남북의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평양에서 교류 행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측 기술자들이 건설한 최초의 복합건물이라고 남측 평화자동차그룹이 밝히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

평양에 평화자동차 건설 ‘세계평화센터’

는 인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 문화·학술·종교 세미나, 남북 화상상봉 장소 등 다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800석 규모의 연회장도 2개나 있으며,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 등을 초청해 북측의 전문 인력

목사와 성도들은 절대로 북한 방문시 세계평화센터 시설물과 보통강호텔을 이용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선교신학

- 인천캠퍼스: 부천시 오정구 작동30-8 T.010-2326-0017
- 부천캠퍼스: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6-4 T.018-240-7119
- 충주캠퍼스: 충주시 단월동 180-8 T.018-227-1854
- 전북캠퍼스: 전북 익산시 현영동 543-23 T.010-4657-9171

국제 선교 신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정립)총회의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교단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전문화, 특수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선교신학은 성경중심, 실천신학, 영성, 인성교육등으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목회자 선교사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밝은 미래의 국제 선교 신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2007년도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구 분	학 과	학 재	모집정원	자 격
신 학 부	신 학 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목 회 학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선교학과	4	20	고졸이상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여목회학과	4	20	학 력 불 분
신학연구원	신학연구과	3	20	신학부 및 대학원졸업 소지자
	목회연구과	2	20	신학부 및 대학원졸업 소지자

졸업 후 특 전

1. 신학부 4년 졸업후소정의(연구원)과정을 거쳐서목사 안수를받을 수 있음.
2. 여성 교육이수자는 본 교단에서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음.
3. 성적이 우수한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4. 선교 교육에 뜻이있는 분은 본교단에서 교육과정을 거쳐본교와 조인된 해외선교사로 파송(미국, 호주,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5. 장로, 권사, 집사님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6. 여목회 학과는 서류 및 면접으로 수시 편입 할 수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사역자로써 사명감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공부 못하신분, 시간관계가 허락하지 않으신분, 건강으로 지연되신분들에게 신학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실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지방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제 출 서 류

- | | |
|----------------------|----|
| 1. 입학원서 | 1부 |
| 2. 주민등록등본 | 1통 |
| 3. 반명함판 사진 | 4장 |
| 4. 최종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 1부 |

원 서 교 부

본교서무과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7-30
전 화 : 02)2299-4579, 2299-4589
F A X : 02)2299-0903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창단 100주년 기념 및 아시아투데이 창간기념》



천상의 화음으로 유명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이 열린다.

오는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차례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아시아투데이가 창간기념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1백 년 역사를 이어 온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자 전 세계 유일의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으로 30여 년

간 지속된 아시아 투어를 비롯하여 한국 공연은 15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합창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게 되어 뜻 깊은 공연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요와 성가곡을 비롯해 한국 풍요와 가곡, 민요, 한국인 애창가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여느 합창

단과 달리 소년들의 변성기를 고려해 투어를 떠나기 약 두 달 전 오직 24명의 투어 멤버만을 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합창 공연에서는 합창단 역사에 유례가 없는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 줄 최정상의 솔리스트 24명이 노래하는 천상의 화음을 감상할 수 있다.

- 티켓가격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 할 인 : 10월 12일(금)~26일(금) 조기예매 20% 할인
- 예 매 처 :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 (문의: 1544-1555)
-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문의: 1588-7890)
- 공연 및 단체티켓 문의: SPA 엔터테인먼트(주) 02-523-5391

소 · 리 · 엘

“주님께 더욱 충성하라고 주신 상”

“19년째 사역하면서 상을 받을 때마다 상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하지만 더욱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신 상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07 CCM 어워즈'에서 대상을 거머쥔 소리엘. 소리엘은 1990년 9월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 은상 수상을 계기로 데뷔한 후 한국컨타넨탈싱어즈, 한국마라나타 선교단 등에서 사역한 바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30여개국 공연한 경력을 갖고 있다. 7집

앨범까지 포함해 총 17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CCM계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소리엘의 장혁재 씨는 “얼마전 찬양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다. 소리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

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됐다”며 “미국에 유학 중인 지병현 씨와 함께 이 땅에 힘을 잃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충성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렇게 CCM을 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다.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모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Book

교양인을 위한 바이블키워드

신간 <바이블 키워드>는 알아내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성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을 뽑아내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언급된 수많은 인명, 지명, 사건들을 5백여 개의 표제로 삼았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독자의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사전식 편집을 채택했다. 저자인 J. 스티븐 랭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신학적인 해석에만 치우치지 않고 성서의 내용과 연관된 지식과 상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인간의 언어인가?’

크리스천의 영원한 질문. 어떤 언어로 기도할 것인가. 최근 크리스천들 사이에 김우현 감독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방언의 신비와 유익을 재조명했다는 ‘하늘의 언어’는 출간 4개월 만에 7만부 이상 판매기록을 세우며 전국 방언집회의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늘의 언어에 따르면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본으로 방언을 통해 우리의 영이 청산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방언의 화백이아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왕들의 이야기

대선을 앞둔 요즘만큼 리더,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 관심을 갖는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왕들의 이야기 1 분열왕국의 시작>은 올바른 리더의 바로미터를 제시한다. 이스라엘 왕조의 솔로몬부터 분열왕국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서 멸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제시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하나님께 쓰임 받은 왕들의 모습을 낱말이 드러낸다. 단, 이스라엘 역사의 코드를 오늘날 재해석해야 하는 것은 독자의 몫



Music

영혼을 맑게 해주는 음악
새 앨범 피아노 에스프레소
(Piano Espresso)



영혼을 맑게 해주는 음악. 새 앨범 피아노 에스프레소(Piano Espresso)를 발표하는 Yoon Hyeon.

이들의 음악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반응으로, 그 분을 깊이 아는 지식과 일제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도와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

아이합팬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음반
머천트 밴드
(MERCHANT BAND)의 앨범



머천트 밴드는 아이합(HOP)의 메인 워십밴드로 기도와 예배사역을 위해 한 주간에 6번씩 2시간 세션의 워십을 인도하며, One Thing을 비롯한 아이합의 거의 모든 컨퍼런스과 중보사역의 음악과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워십팀이다.

이들의 음악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반응으로, 그 분을 깊이 아는 지식과 일제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도와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

트럼펫으로 연주한 찬송가의 찬찬한 선율
트럼펫터 임문길의 2집 앨범
예수아-Live & Studio



국내 CCM계의 대표적인 트럼펫터 임문길 목사(은혜교회)가 2004년 이후 3년 만에 2집 앨범 '예수아-Live & Studio'를 발표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2집 앨범은 라이브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브곡은 올해 6월 '은혜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예수아 콘서트'에서 연주한 곡들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곡만을 선별해 수록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월드 투어 팀 첫 내한공연

30여 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버전으로 변신하면서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오는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한국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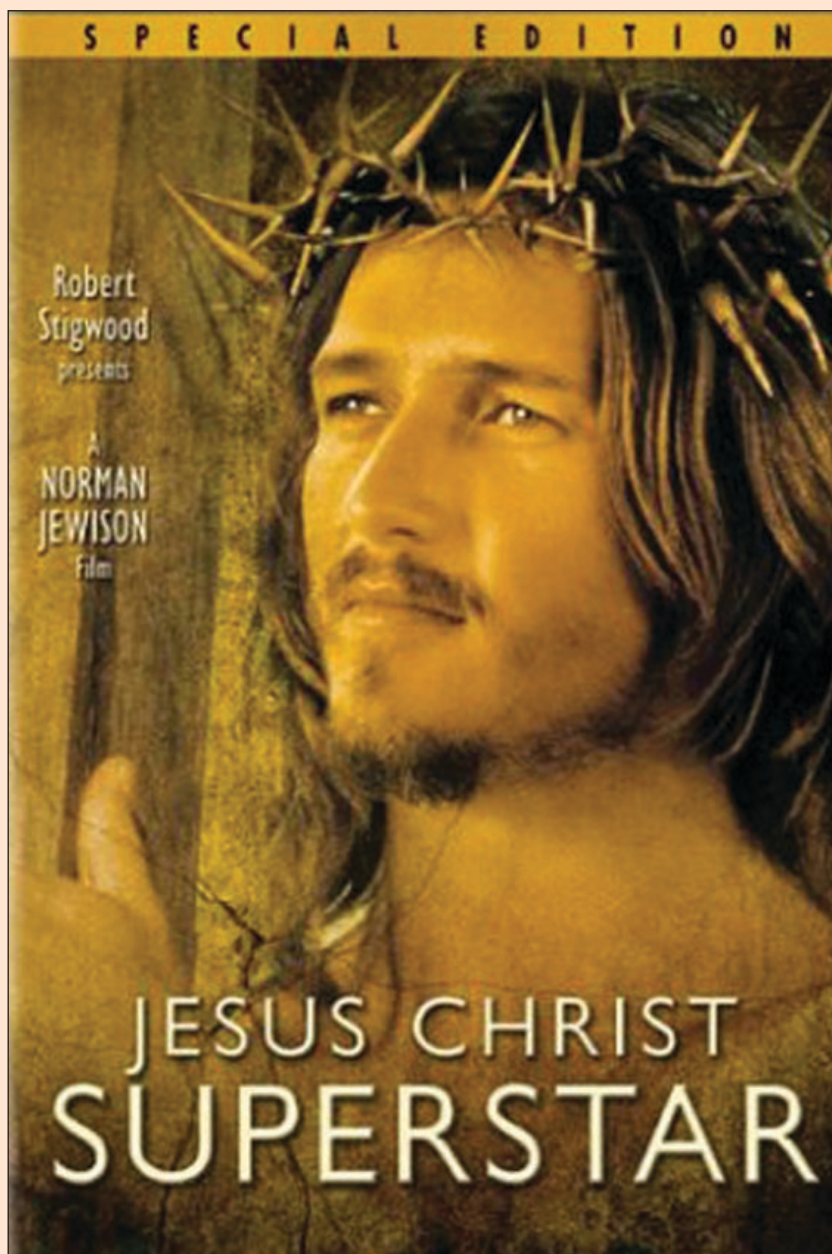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미사시공, 캣츠,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을 포함하여 세계 5대 뮤지컬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steady seller musical이다.

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뮤지컬계의 [마이더스]라 불리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브로드웨이 진출작으로 뛰어난 음악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에는 I don't know how to love hom, Everything's Alright, Gethsemane, Superstar 등 널리 알려져 있는 히트 뮤지컬 넘버들로 30년 넘게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예수 역에는 가수이자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Clive Davis가 맡았다. 그는 아프리카 최고 밴드인 윈더블의 리더로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며 최고의 락 스타로 활동 중이다.

특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역으로 뮤지컬에 데뷔했으며, 놀라운 음성과 사람스럽고 부드러운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마리아 역은 뉴욕을 중심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Gina Shmukler가 연기한다.



2007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신곡(13~19집, 유니버시티성가, 캐롤송) 강신숙 신곡 음반 출판기념

1부 사회

이태희 목사 (신곡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 7집, 8집, 9집, 10집, 11집, 12집, 13집, 14집, 15집, 16집, 17집, 18집, 19집, 20집, 21집, 22집, 23집, 24집, 25집, 26집, 27집, 28집, 29집, 30집, 31집, 32집, 33집, 34집, 35집, 36집, 37집, 38집, 39집, 40집, 41집, 42집, 43집, 44집, 45집, 46집, 47집, 48집, 49집, 50집, 51집, 52집, 53집, 54집, 55집, 56집, 57집, 58집, 59집, 60집, 61집, 62집, 63집, 64집, 65집, 66집, 67집, 68집, 69집, 70집, 71집, 72집, 73집, 74집, 75집, 76집, 77집, 78집, 79집, 80집, 81집, 82집, 83집, 84집, 85집, 86집, 87집, 88집, 89집, 90집, 91집, 92집, 93집, 94집, 95집, 96집, 97집, 98집, 99집, 100집, 101집, 102집, 103집, 104집, 105집, 106집, 107집, 108집, 109집, 110집, 111집, 112집, 113집, 114집, 115집, 116집, 117집, 118집, 119집, 120집, 121집, 122집, 123집, 124집, 125집, 126집, 127집, 128집, 129집, 130집, 131집, 132집, 133집, 134집, 135집, 136집, 137집, 138집, 139집, 140집, 141집, 142집, 143집, 144집, 145집, 146집, 147집, 148집, 149집, 150집, 151집, 152집, 153집, 154집, 155집, 156집, 157집, 158집, 159집, 160집, 161집, 162집, 163집, 164집, 165집, 166집, 167집, 168집, 169집, 170집, 171집, 172집, 173집, 174집, 175집, 176집, 177집, 178집, 179집, 180집, 181집, 182집, 183집, 184집, 185집, 186집, 187집, 188집, 189집, 190집, 191집, 192집, 193집, 194집, 195집, 196집, 197집, 198집, 199집, 200집, 201집, 202집, 203집, 204집, 205집, 206집, 207집, 208집, 209집, 210집, 211집, 212집, 213집, 214집, 215집, 216집, 217집, 218집, 219집, 220집, 221집, 222집, 223집, 224집, 225집, 226집, 227집, 228집, 229집, 230집, 231집, 232집, 233집, 234집, 235집, 236집, 237집, 238집, 239집, 240집, 241집, 242집, 243집, 244집, 245집, 246집, 247집, 248집, 249집, 250집, 251집, 252집, 253집, 254집, 255집, 256집, 257집, 258집, 259집, 260집, 261집, 262집, 263집, 264집, 265집, 266집, 267집, 268집, 269집, 270집, 271집, 272집, 273집, 274집, 275집, 276집, 277집, 278집, 279집, 280집, 281집, 282집, 283집, 284집, 285집, 286집, 287집, 288집, 289집, 290집, 291집, 292집, 293집, 294집, 295집, 296집, 297집, 298집, 299집, 300집, 301집, 302집, 303집, 304집, 305집, 306집, 307집, 308집, 309집, 310집, 311집, 312집, 313집, 314집, 315집, 316집, 317집, 318집, 319집, 320집, 321집, 322집, 323집, 324집, 325집, 326집, 327집, 328집, 329집, 330집, 331집, 332집, 333집, 334집, 335집, 336집, 337집, 338집, 339집, 340집, 341집, 342집, 343집, 344집, 345집, 346집, 347집, 348집, 349집, 350집, 351집, 352집, 353집, 354집, 355집, 356집, 357집, 358집, 359집, 360집, 361집, 362집, 363집, 364집, 365집, 366집, 367집, 368집, 369집, 370집, 371집, 372집, 373집, 374집, 375집, 376집, 377집, 378집, 379집, 380집, 381집, 382집, 383집, 384집, 385집, 386집, 387집, 388집, 389집, 390집, 391집, 392집, 393집, 394집, 395집, 396집, 397집, 398집, 399집, 400집, 401집, 402집, 403집, 404집, 405집, 406집, 407집, 408집, 409집, 410집, 411집, 412집, 413집, 414집, 415집, 416집, 417집, 418집, 419집, 420집, 421집, 422집, 423집, 424집, 425집, 426집, 427집, 428집, 429집, 430집, 431집, 432집, 433집, 434집, 435집, 436집, 437집, 438집, 439집, 440집, 441집, 442집, 443집, 444집, 445집, 446집, 447집, 448집, 449집, 450집, 451집, 452집, 453집, 454집, 455집, 456집, 457집, 458집, 459집, 460집, 461집, 462집, 463집, 464집, 465집, 466집, 467집, 468집, 469집, 470집, 471집, 472집, 473집, 474집, 475집, 476집, 477집, 478집, 479집, 480집, 481집, 482집, 483집, 484집, 485집, 486집, 487집, 488집, 489집, 490집, 491집, 492집, 493집, 494집, 495집, 496집, 497집, 498집, 499집, 500집, 501집, 502집, 503집, 504집, 505집, 506집, 507집, 508집, 509집, 510집, 511집, 512집, 513집, 514집, 515집, 516집, 517집, 518집, 519집, 520집, 521집, 522집, 523집, 524집, 525집, 526집, 527집, 528집, 529집, 530집, 531집, 532집, 533집, 534집, 535집, 536집, 537집, 538집, 539집, 540집, 541집, 542집, 543집, 544집, 545집, 546집, 547집, 548집, 549집, 550집, 551집, 552집, 553집, 554집, 555집, 556집, 557집, 558집, 559집, 560집, 561집, 562집, 563집, 564집, 565집, 566집, 567집, 568집, 569집, 570집, 571집, 572집, 573집, 574집, 575집, 576집, 577집, 578집, 579집, 580집, 581집, 582집, 583집, 584집, 585집, 586집, 587집, 588집, 589집, 590집, 591집, 592집, 593집, 594집, 595집, 596집, 597집, 598집, 599집, 600집, 601집, 602집, 603집, 604집, 605집, 606집, 607집, 608집, 609집, 610집, 611집, 612집, 613집, 614집, 615집, 616집, 617집, 618집, 619집, 620집, 621집, 622집, 623집, 624집, 625집, 626집, 627집, 628집, 629집, 630집, 631집, 632집, 633집, 634집, 635집, 636집, 637집, 638집, 639집, 640집, 641집, 642집, 643집, 644집, 645집, 646집, 647집, 648집, 649집, 650집, 651집, 652집, 653집, 654집, 655집, 656집, 657집, 658집, 659집, 660집, 661집, 662집, 663집, 664집, 665집, 666집, 667집, 668집, 669집, 670집, 671집, 672집, 673집, 674집, 675집, 676집, 677집, 678집, 679집, 680집, 681집, 682집, 683집, 684집, 685집, 686집, 687집, 688집, 689집, 690집, 691집, 692집, 693집, 694집, 695집, 696집, 697집, 698집, 699집, 700집, 701집, 702집, 703집, 704집, 705집, 706집, 707집, 708집, 709집, 710집, 711집, 712집, 713집, 714집, 715집, 716집, 717집, 718집, 719집, 720집, 721집, 722집, 723집, 724집, 725집, 726집, 727집, 728집, 729집, 730집, 731집, 732집, 733집, 734집, 735집, 736집, 737집, 738집, 739집, 740집, 741집, 742집, 743집, 744집, 745집, 746집, 747집, 748집, 749집, 750집, 751집, 752집, 753집, 754집, 755집, 756집, 757집, 758집, 759집, 760집, 761집, 762집, 763집, 764집, 765집, 766집, 767집, 768집, 769집, 770집, 771집, 772집, 773집, 774집, 775집, 776집, 777집, 778집, 779집, 780집, 781집, 782집, 783집, 784집, 785집, 786집, 787집, 788집, 789집, 790집, 791집, 792집, 793집, 794집, 795집, 796집, 797집, 798집, 799집, 800집, 801집, 802집, 803집, 804집, 805집, 806집, 807집, 808집, 809집, 810집, 811집, 812집, 813집, 814집, 815집, 816집, 817집, 818집, 819집, 820집, 821집, 822집, 823집, 824집, 825집, 826집, 827집, 828집, 829집, 830집, 831집, 832집, 833집, 834집, 835집, 836집, 837집, 838집, 839집, 840집, 841집, 842집, 843집, 844집, 845집, 846집, 847집, 848집, 849집, 850집, 851집, 852집, 853집, 854집, 855집, 856집, 857집, 858집, 859집, 860집, 861집, 862집, 863집, 864집, 865집, 866집, 867집, 868집, 869집, 870집, 871집, 872집, 873집, 874집, 875집, 876집, 877집, 878집, 879집, 880집, 881집, 882집, 883집, 884집, 885집, 886집, 887집, 888집, 889집, 890집, 891집, 892집, 893집, 894집, 895집, 896집, 897집, 898집, 899집, 900집, 901집, 902집, 903집, 904집, 905집, 906집, 907집, 908집, 909집, 910집, 911집, 912집, 913집, 914집, 915집, 916집, 917집, 918집, 919집, 920집, 921집, 922집, 923집, 924집, 925집, 926집, 927집, 928집, 929집, 930집, 931집, 932집, 933집, 934집, 935집, 936집, 937집, 938집, 939집, 940집, 941집, 942집, 943집, 944집, 945집, 946집, 947집, 948집, 949집, 950집, 951집, 952집, 953집, 954집, 955집, 956집, 957집, 958집, 959집, 960집, 961집, 962집, 963집, 964집, 965집, 966집, 967집, 968집, 969집, 970집, 971집, 972집, 973집, 974집, 975집, 976집, 977집, 978집, 979집, 980집, 981집, 982집, 983집, 984집, 985집, 986집, 987집, 988집, 989집, 990집, 991집, 992집, 993집, 994집, 995집, 996집, 997집, 998집, 999집, 1000집, 1001집, 1002집, 1003집, 1004집, 1005집, 1006집, 1007집, 1008집, 1009집, 1010집, 1011집, 1012집, 1013집, 1014집, 1015집, 1016집, 1017집, 1018집, 1019집, 1020집, 1021집, 1022집, 1023집, 1024집, 1025집, 1026집, 1027집, 1028집, 1029집, 1030집, 1031집, 1032집, 1033집, 1034집, 1035집, 1036집, 1037집, 1038집, 1039집, 1040집, 1041집, 1042집, 1043집, 1044집, 1045집, 1046집, 1047집, 1048집, 1049집, 1050집, 1051집, 1052집, 1053집, 1054집, 1055집, 1056집, 1057집, 1058집, 1059집, 1060집, 1061집, 1062집, 1063집, 1064집, 1065집, 1066집, 1067집, 1068집, 1069집, 1070집, 1071집, 1072집, 1073집, 1074집, 1075집, 1076집, 1077집, 1078집, 1079집, 1080집, 1081집, 1082집, 1083집, 1084집, 1085집, 1086집, 1087집, 1088집, 1089집, 1090집, 1091집, 1092집, 1093집, 1094집, 1095집, 1096집, 1097집, 1098집, 1099집, 1100집, 1101집, 1102집, 1103집, 1104집, 1105집, 1106집, 1107집, 1108집, 1109집, 1110집, 1111집, 1112집, 1113집, 1114집, 1115집, 1116집, 1117집, 1118집, 1119집, 1120집, 1121집, 1122집, 1123집, 1124집, 1125집, 1126집, 1127집, 1128집, 1129집, 1130집, 1131집, 1132집, 1133집, 1134집, 1135집, 1136집, 1137집, 1138집, 1139집, 1140집, 1141집, 1142집, 1143집, 1144집, 1145집, 1146집, 1147집, 1148집, 1149집, 1150집, 1151집, 1152집, 1153집, 1154집, 1155집, 1156집, 1157집, 1158집, 1159집, 1160집, 1161집, 1162집, 1163집, 1164집, 1165집, 1166집, 1167집, 1168집, 1169집, 1170집, 1171집, 1172집, 1173집, 1174집, 1175집, 1176집, 1177집, 1178집, 1179집, 1180집, 1181집, 1182집, 1183집, 1184집, 1185집, 1186집, 1187집, 1188집, 1189집, 1190집, 1191집, 1192집, 1193집, 1194집, 1195집, 1196집, 1197집, 1198집, 1199집, 1200집, 1201집, 1202집, 1203집, 1204집, 1205집, 1206집, 1207집, 1208집, 1209집, 1210집, 1211집, 1212집, 1213집, 1214집, 1215집, 1216집, 1217집, 1218집, 1219집, 1220집, 1221집, 1222집, 1223집, 1224집, 1225집, 1226집, 1227집, 1228집, 1229집, 1230집, 1231집, 1232집, 1233집, 1234집, 1235집, 1236집, 1237집, 1238집, 1239집, 1240집, 1241집, 1242집, 1243집, 1244집, 1245집, 1246집, 1247집, 1248집, 1249집, 1250집, 1251집, 1252집, 1253집, 1254집, 1255집, 1256집, 1257집, 1258집, 1259집, 1260집, 1261집, 1262집, 1263집, 1264집, 1265집, 1266집, 1267집, 1268집, 1269집, 1270집, 1271집, 1272집, 1273집, 1274집, 1275집, 1276집, 1277집, 1278집, 1279집, 1280집, 1281집, 1282집, 1283집, 1284집, 1285집, 1286집, 1287집, 1288집, 1289집, 1290집, 1291집, 1292집, 1293집, 1294집, 1295집, 1296집, 1297집, 1298집,